

## 552장 - 아침 해가 돋을 때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 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 292장 - 주 없이 살 수 없네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5월 21일(화) 기도 담당 : 손웅열 집사

2019년 5월 20일(월)

##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흥석 목사

예배를 여는말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552장	..... 다같이
기도	.....	오충일 집사
성경봉독	..... 이사야 51장 1~8절	..... 인도자
찬양	.....	새벽찬양대
설교	..... 『황폐한 땅, 하나님의 위로』	..... 고형석 목사
기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같이
찬송	..... 292장	..... 다같이
축도	.....	설교자

### ☞ 오늘의 말씀 < 이사야 51장 1-8절 >

1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3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4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양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6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7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 옷 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5월 20일(월)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새 호흡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안에서 시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갈지라도 위로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뤄가는 신앙의 과정에서, 믿음을 키우시고 자라게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옵소서. 황무지를 끝내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비전을 따라 새문안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여 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공동체”를 향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심을 믿사오니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주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어제 우리교회를 방문한 지체들이 예수 안에 삶의 참 진리를 붙잡게 하시어 그들의 삶에 참된 빛이 비취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드시어 주님 사명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새문안의 모든 권속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환난의 때를 살고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사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처한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어 주님 안에서 더 큰 주님의 신비를 보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어 이 땅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게 하옵소서. 저 복녘에 신음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사 어둠에 휩싸인 저 북한 땅이 속히 열려지게 하시며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과 주 뜻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